

이기웅의 영혼도서관



추석 명절, 어떤 이야기를 나눌 것인가?

가을이다. 어느새 청명한 계절이 뽀푸른 하늘을 떠받들면서 무더위에 지친 우리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지금으로부터 오륙십 년 전에는 '고된 농사일'과 '슬픈 가난'이라는 두 등장이 우리들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날이 어두워지자, 선교장 뒷동산엔 손불을 든 동네 아이들이 떼지어 달을 향해 소리친다. "만월(滿月)이요..."

은 그들의 가세(家勢)에 맞춰 제례(祭禮) 준비를 서두른다. 대부분이 이곳 농경 마을에 뿌리 내리고 살아온 집안들이다.

제사(祭祀)는 가족들끼리 또는 집안끼리의 오랜 유형을 갖는다. 제사는 성묘(省墓)로 이어진다.

그때 그 시절, 추석에 모인 가족들은 무슨 말들을 주고받았을까.

기를 주고받는 일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 이전에는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람들 사이에서 상대방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이 당연했으나,

옛집 선교장 사랑방에 모인 어른들은 마을에서 늘 만나는 이들이 대부분이라, 그저 차분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어 눈쟁적이지 않았다.

농사(農事)일이 화제의 주류를 이룬다. 농사일에 관해 무슨 할 말이 많았나고 물으면, 그건 너무 모르는 말씀이다.

농사일에 관해 무슨 할 말이 많았나고 물으면, 그건 너무 모르는 말씀이다. 농사를 벌이 삼야 하늘과 땅의 이치를 가늠해 보면서, 풍곡에는 자연의 섭리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먹거리를 마련함이 농사일이라지만, 곡식과 과실과 가족을 거두고 타자하고 갈무리

하는 모든 과정에서 절제와 조화와 균형, 그리고 인간애로 가득한 처분(處分)과 처신(處身)이 요구되는 일 아니던가.

가난이 축복일 때가 많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반대로, 부유함이 재앙을 몰고 올 때가 많음을 경고하는 이들이 많음도 사실이요, 이러한 징후들은 많이 있다.

내 어린 시절에 비해 지금 우리는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다. 모처럼 사랑방에 모인 식구들이 나누는 화제에서부터, 그 대화마저 방해하는 텔레비전이며, 집안 이 구석 저 구석에 흩어져서 스마트폰에 코를 박고 있을 젊은이들 하며, 고속도로 휴게소나 이동하는 차 안에서 종작거리는 오디오들의 소음 때문에 우리는 참된 인간의 대화, 곧 하늘의 이치, 땅의 이치, 인간의 이치 그리고 우주의 섭리를 논할 어느 구석마저 찾을 수 없게 돼 간다.

이렇듯 안타까운 추석 명절을 앞으로 얼마 동안을 맞이해야 하는 것인가. (영화당 대표)

社說

가족의 소중함 일깨우는 추석 명절 돼야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에 이를 앞두고 다가왔다. 이번 추석은 평일과 주말이 겹쳐 5일 연휴가 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이동하는 인구도 350만 명이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전국이 도시화되고, 핵가족화되면서 가족의 유대감이 떨어진 게 사실이다.

만나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시피 한 일상을 벗어나 가족들과 서로 정을 주고 나누다 보면 훨씬 마음이 넓어지게 된다.

집이 가족, 친지들과의 만남에서 얻는 사회적 수확이다.

우리 주변에는 즐거운 명절이면 더욱 외로워지는 사람이 많다.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이웃을 비롯해 경노원과 보육원 등 사회복지시설은 지금 경기침체의 여파로 여느 때 보다 힘들고, 고달프다.

우리 사회는 민생과 일자리 문제, 경제 위기, 정치적·계층·이념 간의 갈등, 양극화 심화 등 모든 부문에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특히 이번 추석은 태풍과 집중 호우 등 자연재해가 없었던 풍요롭고 넉넉한 한가위로서 모두에게 설레임과 기쁨을 안겨주는 추석 명절이 되기를 기대한다.

광주시교육청 과도한 징계 후유증 심하다

광주시교육청이 과도한 징계의 후유증으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고 한다. 청렴을 강조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 할 바는 아니지만 자칫 경직된 교육행정이 교단을 뿌리채 흔드는 악수(惡手)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교육혁신사업위원회는 '명절 떡값'을 받아 시교육청이 해임했던 초등학교 A교장에 대해 징계가 과도하다며 징적 1개월 결정을 내렸다.

시교육청의 해임 결정은 당시 '과도한 징계'라는 논란이 일었다. 떡값이 1인당 10만 원 안팎인데다 금품 총액에 과잉 상차 값까지 포함했고, 전체 교직원들로부터 강제로 받아낸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무리한 징계'였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교육청으로선 소청심사위의 결정을 받아들이거나 복직을 시켜야 하는 것도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시교육청은 지난 13일 보직 임명과 근무평정 상향을 해주겠다고 교사로부터 돈을 받은 초등학교 B교장을 해임하고, C교사를 1개월 강박 처분했다.

물론 비리를 두둔할 수는 없다. 백년대계를 만들어 가는 교육현장이기에 더욱 그렇다. 하지만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 모든 일을 결정해 버리면 이번 사례와 같은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

無等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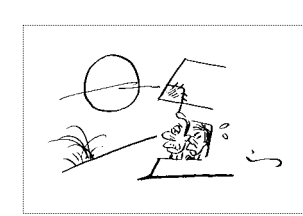
희사가 자리한 곳이 옛 전남도청 앞, 금남로다. 상징적인 의미가 깊은데다 광주 한복관이라 많은 행사가 열리는 장소다.

지난 12일 구호 소리가 들려 차창밖으로 내다본 현장은 낯설었다. 어느 시위 행렬과 닮았다. 시위대의 맨 앞에 선 이들은 신부와 수녀

의와 진리를 위해 헌신했던 숭고한 정신을 잊어버린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정치인들은 임버릇처럼 추석 민심을 위 행렬과 닮았다. 시위대의 맨 앞에 선 이들은 신부와 수녀

추석 민심



보다 이슈가 많다. 국정원 수사, 채동욱 검찰총장 혼의 자식실에서 비롯된 검찰 흔들기 공방, 이석기 의원 문제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질 것이다.

올 추석엔 제발 두 귀 제대로 열고, 국민의 목소리를 똑바로 들길 바란다. 사법 발발 같은 '내 편'의 목소리 말고, 입에 쓴 재 우리나라는 오랜 시간 동안 독재에 항거해 피와 땀, 목숨까지 바쳐 이룩한 민주주의 체계와 정신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했다"며 "정/김미은 문화1부장 mekim@kwangju.co.kr

은펜클럽



송민석 국립대학법인 UNIST 위촉입학사정관

추석에는 스마트폰을 잠시 꺼두자

수일투족이 공개되는 유리알 같은 투명한 사회로 빠르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

모처럼 서울에 가는 날이면 지하철을 이용한다. 빈자리가 낯 때까지 서 있노라면 자리에 앉은 젊은 사람들은 모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느라 여념이 없다.

이렇듯 혼을 속 빼놓은 스마트폰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일까? 핸드폰이 스마트폰으로 진화하면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아주 영악하게도 사람을 몰아매고 있음을 본다.

요즘 사람들은 아침에 눈뜨자마자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찾고, 화장실 갈 때나, 밥 먹을 때도 손에서 놓지 않는다.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비교적 엄격히 구분되어 왔던 공공장소와 사적장소의 경계가 허물어져 가고 있음을 본다.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비교적 엄격히 구분되어 왔던 공공장소와 사적장소의 경계가 허물어져 가고 있음을 본다.

기고



전동호 전남개발공사 개발본부장

햇빛, 바람, 시간 그리고 염부와 소금

나 옹기과편, 갯벌에 황토층을 다져 편평하게 마무리한다. 토관은 물러지지 않게 자주 다져줘야 하는 등 노동력과 시간, 비용이 몇 배이나 생산량은 턱없이 적다.

염부는 결정지에서 햇빛의 칼끝에 눈이 찢리기도 하고 발은 늘 해수에 절여있으면서도 오후 한나절을 저녁놀이 흥얼거리며 팔까지 험없는 대과 짚을 한다.

소금은 햇빛과 바람과 시간 그리고 염부의 큰 고무래 대과 짚에 의해 만들어진다. 바닷물을 끌어들이는 저수조에서 제1 증발지인 난치, 제2 증발지인 느티를 거쳐 결정지에서 소금 꽃을 얻게 되는데 염전(소금밭)이라 부르는 곳이다.

2008년 광물에서 식염이 되면서 전담개발공사의 Ppearl Salt(갯벌토판천일염), 웅구소금, 함초소금, 송화소금, 매실소금, 강황소금 등으로 브랜드화 되고 있지만 아직 해안 천일염의 질(염화나트륨 Nacl 81.7%)과 마그네슘, 아연 등 넘쳐나는 천연 미네랄 함량은 따라오질 못한다.

우리가 국민 80% 이상인 마그네슘 결핍증을 다 해결할 수 있고 나트륨 배설을 촉진하여 혈압도 조절하니 잘라내고 갈아 까우고 깨매고 황생제 먹이는 병영리방과 함께 면역력을 키우고 만물을 살리는 약이 된다.

계절 따라 열리는 축제에서도 언제나 함께하며 위로와 사랑의 단맛, 시비의 신맛, 어둠의 쓴맛, 웅글한 인생의 짠맛 등 온갖가지 맛을 다 가졌다.

바닷바람이 내습나를 볼 때면 윤기가 자르르하게 알뜰히 꽃피우며 흥벅지게 찾아온다. 그래서 소금은 만든다 하지 않고 '날씨 좋은 날 오신다' 한다.

바닷바람이 내습나를 볼 때면 윤기가 자르르하게 알뜰히 꽃피우며 흥벅지게 찾아온다. 그래서 소금은 만든다 하지 않고 '날씨 좋은 날 오신다' 한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84/팩스 062-222-4918/메일 opinion@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광주시 (Gwangju)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